

국민-바른, 대북·외교관 정체성 논란

北 신년사 劉 “한·미 이간질”…安 “터닝포인트 기대”

靑 UAE 특사 劉 “국정조사 해야”…安 “사실확인 먼저”

통합열차를 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지도부가 대북 및 외교정책 등에 이견을 노출하면서 향후 통합 과정과 나아가 통합 후까지 정체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양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등을 둘러싸고 그동안 각각을 보여왔고 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양당은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를 놓고 뚜렷한 태도를 보였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핵무기를 완성하기 위한 시간 끌기용 제스처”라며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한·미 간을 이간질

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뜨리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서도 “지금의 안보위기 대책에 대해서는 일인반구도 없었다”고 혹평했다. 바른정당은 대변인 논평에서도 “새해 첫 아침 북한의 대화 제의는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평가절하했다.

유 대표는 정부가 고위급 접촉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환영하지만, 참가 자체가 어떻게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면 반드시 북한 핵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새해 남북의 대화 분위기에 대해 환영에 방점을 둔 평가를 내놓았다. 국민의당은 공식 논평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언급하면서도 “경색되었던

남북 관계의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안철수 대표는 북핵을 당장 남북 대화 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유 대표의 주장과 달리, “한·미 공조를 통해 ‘통남통미’라는 이간책을 막아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당 인사를 중 상당수는 북핵 문제를 하루 아침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대화의 틀을 열고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놓고 첨예한 시각차를 보였던 양당은 최근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한 통일부 정책 혁신위의 발표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결정된 것은 문제점이 수도룩한 졸속 결정”이라고 비난한 반면, 바른정당은 “당시 개성공단 폐쇄는 적절한 조치”라고 편을 들은 바 있다.

안 대표와 유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UAE) 특사 파견’ 의혹을 놓고도 약간의 견해차를 나타내고 있다.

안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당내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먼저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사실을 밝히는 게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유 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임종석 실장이 UAE에 간 일을 두고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할 걸 거듭 촉구한다”며 “아 3당이 동시에 국정조사를 제안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 측의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바른정당이 박지원·천정배·정동영 의원 등 호남 중진들을 배제하려 하면서 정체성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통합의 한 배를 탄 양당이 대북 및 대외 정책에 근본적 입장차를 계속 보인다면 통합 후에도 갈등의 소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지켜보던 與 ‘합당’에 전제구

秋 “국민은 구태로 낙인 찍어”…한국당도 예의주시

국회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11월 양 당 합당 논의 초반만 해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했으나 합당이 가시화되자 견제구를 날리며 합당에 따른 정치지형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의 사적인 정치적 욕망을 위해 합종연횡하는 것이 민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인위적 정계 개편은 민심 왜곡이라는 점에서 민심의 지지를 받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지난 2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민은 새 대한민국을 원하는데 아직 정치기술적으로 서로 마음에 도 맞지 않은 혼사를 얘기한다. 국민은 이를 구태정치라고 찍어버렸다”며 “나는 그런 아바위 자체에 흥미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민주당이 이처럼 양당 합당 관련, 기존 ‘관망 모드’에서 ‘견제’로 읽히는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은 합당 가능성이 커지는데다, 통합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최고 19%를 기록하면서 제 1야당인 한국당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현재 양당이 합당하더라도 일부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시너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현재 지지율은 ‘컨센서스 효과’나 ‘일시적 거품’이라는 것이다. 일부 여론조

사에서 통합정당이 정당 지지율 2위를 차지한 것과 관련해서도 “여론조사시 질문 내용 또는 방식에 따라 지지율 변동이 크다”는 인식이 강하다.

또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으로 태어날 정당이 사실상 중도보수 깃발 아래 모일 것이라는 점도 민주당의 마음을 놓게 만든다는 관측도 있다. 진보·개혁세력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지지층을 공략하기 보다 보수 주도권을 두고 한국당과 다툼을 벌이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당은 겉으로는 시큰둥하지만, 통합정당이 개혁보수(유승민) 내지 중도 개혁(안철수) 정당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긴장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한국당을 제치고 정당 지지율 2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나 앞서 바른정당도 창당 초기 지지율이 한때 한국당을 앞질렀다가 결국 거품이 빠진 전례가 있는 만큼 통합정당이 선전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기본적 인식이다.

그러나 통합정당이 개혁보수 내지 중도 개혁을 표방하면서 한국당 표밭까지 잠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에서는 적잖이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대구·경북(DK) 등 전통적 텃밭보다는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양당 통합에 대한 민심의 향배를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모색해야한다는 우려가 두드러진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미소 된 秋…는 감은 洪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8년 경제 신년인사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옆을 지나가고 있다. /연향뉴스

한국당 ‘UAE 의혹 공세’ 변화 기류

朴 정부 ‘비밀 양해각서’ 가능성에 당혹…출구전략 부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관련, 연일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던 자유한국당의 기류에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당은 그동안 과거 이명박 정부가 UAE 원전 수출 과정에서 맺은 협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UAE 양국관계가 틀어졌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임 실장이 UAE를 찾아가 쌓인 오해를 풀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현 정부의 외교전략과 적폐정산 기조를 맹비난해왔다.

한국당은 이러한 의혹 자체를 ‘UAE 원전계이트’로 이름짓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등 지난 2일까지 지만해도 맹공을 퍼부었다.

3일도 홍준표 대표는 당 인터넷 방송인 ‘민경욱의 파워토크’에 나가 “UAE 원전계이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잡으려다 발생한 국가 간 분쟁”이라며 “국정조사는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는 높였으나 당 내부적으로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한국당이 정치쟁점화한 한·UAE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당에 불리한 정황들이 최근들어 잇따라 제기되면서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제기한 ‘한국과 UAE 간 비밀 군사 양해각서 존재’가 대표적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두고 박근혜 정부의 ‘비밀 양해각서’와 연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한국과 UAE 군사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며 “최근 갈등이 불거진 것은 이 양해각서의 이행 여부를 두고 양국 간 상당한 신뢰에 손상이 갔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임 실장이 특사로 UAE를 방문하게 됐다”는 분석을 내놔다. 그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원전을 수출하면서 UAE는 ‘상호방위조약’을 요구했는데, 양해각서 체결 시점은 박근혜 정부 초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해각서는 우리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는, 국내법에도 저촉이 되는 무리한 내용이었고 잘못된 약속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양국 간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보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발생했고 그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수습하는 형국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의 UAE 원전 수출 과정에서 이른계약이 있는지, 거액의 리베이트 은닉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당의 딜레마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이미 임 실장의 UAE 방문 논란을 두고 청와대와 극한 대치로 치달은 탓에 쉽게 물러설 수도 없는 형편에서, 조심스럽게 출구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기류가 감지된다. 홍 대표가 이날 “국가 간 외교 문제를 국내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형호기자 khk@

광주 온 이정미 “국민의당 사라질 것”

“합당은 한국 정치 구습 반복…정의당 지지해 달라”

광주를 찾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국민의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정미 대표를 비롯해 정의당 대표단은 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당을 겨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지금 이곳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며 “한국 정치의 구습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말대로 설 이전에 통합하면 국민의당은 딱 2년 만에 사라지며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당이 된다”며 “김대중 정신을 잊었다면

국민의당을 선택한 광주시민은 배신의 날벼락을 맞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2018년은 호남 민심을 외면하고 배반한 국민의당이 아직도 호남 제1야당이라는 이 기이한 정치지형을 뒤바꾸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정의당도 호남에서 시작하겠으니 호남과 광주도 야당을 교체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지역을 책임질 탄탄한 일꾼들을 내릴 있게 준비하고 있다”며 “살펴봐 주시고 선택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 대표단은 기자회견에 앞서 국립 5·18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2
예능	음 악 학 과	5
	실용음악학과	4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6(토) ~ 1.9(화)
• 전 형 일 : 2018. 1. 16(화)

편 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일반편입 (3학년)	정 원 외 학사편입 (3학년)	유치원교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	○
예능	음 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8(월) ~ 17(수)
• 전형일 : 2018. 1. 23(화)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8(월) ~ 1.17(수)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8. 1. 23(화) 오후 2시 30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 학교 로 오십시오!!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8. 1. 26(금) ~ 2. 2(금)

②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8. 2. 6(화) 오후 2:30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	2018. 2. 6(화) 오후 2:40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2018. 2. 6(화)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학과(M.S.W.)	○	2018. 2. 6(화) 오후 2:4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음악학과(M.A.)	○	
음악대학원		실용음악학과(M.A.)	○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